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경영자를 위한 포장세미나 개최
 읍셋, 그라비아 플렉소 인쇄 시장 동향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는 지난 달 4일 서울팔래스호텔 12층 라일락룸에서 경영자를 위한 포장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호 소장은 “수년전부터 우리 포장업계는 제비용은 계속 상승되고 수요업체의 납품가 인상은 커녕 오히려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품질수준의 강화, 친환경 포장, 작업의 안정성 및 환경개선, 소방법 강화 등 원가상승의

요인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 이런 현상을 먼저 겪은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읍셋인쇄의 시장동향과 대응책, 플렉소 인쇄의 새로운 종류와 발전성, 혁신적인 고풍택 종이가공기술과 신시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 강사인 香田 裕誌 Printech 대표는 Toyo Ink(주)개발부장, 연구소장, 국제부장, 기술개발본부 총합기획부장, 일본후렉소기술협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고문이다.

또한 森田 七五三男 (주)Comtecs 동경지사 취체역 부장은 디자인, 사진제판, 인쇄용기기, 소모품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淺野 宣勝은 (주)Kyowa Tech 대표취체역이다.



▲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경영자를 위한 포장세미나 개최

(주)코오롱
무색 PI 필름 개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관 소개

(주)코오롱(대표이사 배영호)은 자사의 폴리이미드(PI) 필름 기술을 토대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기관소재 개발에 나섰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을 이용해 구부리거나 두루마리처럼 말 수 있도록 한 평판 디스플레이로 삼성전자·LG필립스 LCD 등 국내외 주요 패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제품의 하나이다.

지난 2005년 PI필름 국산화에 성공한 코오롱은 현재 이 기술을 바탕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기관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무색 PI필름을 개발 중이다. 무색 PI필름은 불투명한 기존 제품과 달리 유연하면서도 높은 내열성과 광학적 특성을 갖는 고부가 제품으로 일본업체 한 두곳만이 제품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오롱은 또 기관소재 외에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CNT) 투명전극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지난 7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CNT 기술을 접목한 전도성 PI 제품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PI필름을 이용한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오롱은 1990년대 말 PI필름 연구를 시작 했다.

경남 남해군
쓰레기에서 고품연료 생산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동

경남 남해군이 군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선별, 처리해 생산한 고품연료를 시멘트 가공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최근 전국 규모의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선별한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고품연료를 쌍용양회에 시멘트 가공용 연료로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생활폐기물에 섞여 버려지고 있는 각종 비닐봉지와 합성수지 조각들을 선별한 뒤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일정온도에서 녹여 만든 RPF(Refused Plastics Fuel)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고품 연료를 쌍용양회에 공급하게 됐다.

쌍용양회는 군에서 가공한 연간 5백여톤의 플라스틱 고품 연료를 제공받아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 활용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만성적으로 겪어왔던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 4월부터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MBT 시설)을 가동해 왔다.

MBT 시설 가동으로, 생활폐기물 선별을 통해 나온 유기성폐기물은 발효시켜 양질의 부숙토로 만들고,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은 고품연료(RPF)로 생산이 가능하게 돼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